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론

공 종 구*

요 약

이 글은 분석 대상은 염상섭의 소년소설 『채석장의 소년』이다. 소년소설의 외피를 쓰고 있는 이 작품은 단순한 소년소설이 아니라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인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에 대한 염상섭의 진단과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축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게 이 글의 기본 전제이다. 그 축도와 관련하여 완식이의 복학 문제는 이 작품의 핵심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창규의 실신 및 완식이 가족의 이사와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화해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속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다. 창규의 실신과 완식이 가족의 이사 모티프는 주택난과 식량 위기로 인한 해방공간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화해 모티프는 당시 헤게모니를 둘러싸고서 각축을 벌이던 각 정당이나 사회 단체들 간의 갈등과 대립 및 그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및 민족적 전망의 수립과 관련하여 염상섭이 제시한 진단과 해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시 조선이 처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염상섭은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염상섭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문제 또한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염상섭은 해방공간에서의 조선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과제인 협력과 연대의 가치 및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주체들로 소년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염상섭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주역으로 상징한 소년들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기대와 신뢰를 투사하고 있다.

주제어: 협력과 연대, 공동체적 부조, 무조건적인 환대, 민주주의, 소년중심주의, 시대적 과제, 민족적 전망, 알레고리, 민족문학, 리얼리스트

목차

- 1. 들어가는 글
- 2. 해방공간의 알레고리적 축도
- 3.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한국의 근·현대 문학사 지형에서 염상섭(1897~1963)이 차지하는 중심성의 위상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표본실의 청개구리>(1921)로 등단한 이후 작품 활동을 마감하기까지 염상섭이 도달한 바 있는 돌출한 문학적 성취는 가히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염상섭이 발표한 작품들의 완성도나 수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919년부터 1962년까지 약 44년에 걸쳐 창작활동에 전념”¹⁾ 하는 동안 염상섭이 발표한 작품 수는 “장편소설 28편, 단편소설 150편, 평론 101편, 수필 30편, 수상 및 기타 잡문 153편 등 초창기적으로 총 500여편”²⁾에 이른다. 창작활동 기간이나 발표한 작품

1) 김원우, 『개인과 군중의 시공간』, 『산책자의 눈길』, 강, 2008, 191면.

수만으로도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을 압도하지만 염상섭이 더욱 문체적인 것은 그가 발표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한결같이 존재와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천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담아내는 서사와 문체의 밀도 또한 성글지가 않다는 점이다. 이광수나 김동인과는 달리 그가 장문의 복합문장과 비선조적인 서사를 선호했던 것도 존재와 세계의 핵심과 본질에 육박하고자 하는 치열한 산문정신의 소산이었다. 물론, 해방 이후 염상섭이 발표한 일부 작품들 가운데는 범속한 세대나 평면적인 풍속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들도 없지 않다. 심지어는 “〈그 여자의 운명〉(1935), 〈청춘항로〉(1936), 〈불연속선〉(1936) 등 한갓 통속묘사를 일삼는 통속소설에 지나지 않는다”³⁾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들조차 존재한다. 하지만 김종균을 필두로 김윤식, 이보영, 김재용, 김경수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투어 염상섭을 천착하고자 했던 것도 “누구도 아직 횡보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없을”⁴⁾ 정도로 흡인력이 뛰어난 그의 문학적 마력을 빼놓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염상섭은 시종일관 당대의 시대적 과제와 정직하게 대결하면서 민족적인 전망을 모색하는 작업을 자신의 문학적 화두로 삼고서 고민하고 씨름했다. 그가 창작활동을 했던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와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 등 민족사의 명운을 가름할 정도로 결정적인 분수령을 지닌 격동의 사건들이 중첩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염상섭 개인에게도 술한 우여곡절과 인생유전으로 점철된 기간이기도 했다. 염상섭이 일구어낸 민족문학의 성과는 이러한 민족사적 고난과 개인적 험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응시하고 치열하게 대결하고자 한 고투의 결과이다. 염상섭 문학

2) 위의 글, 191면.

3)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614면.

4) 김원우, 『횡보의 눈과 길』, 『산책자의 눈길』, 강, 2008, 170면.

의 이러한 민족문화적 성취와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조명을 통한 정당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채석장의 소년』 또한 염상섭 소설의 이러한 계보의 연장선에 있다.

“아동잡지인 《소학생》에 1950년 1월부터 연재되다가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전쟁 중인 1952년에 단행본으로 출판”⁵⁾된 이 작품은 염상섭 작품의 전체 계보에서 보면 이질적이고 그 비중에서 보면 주변적이다. 이 작품을 이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섭은 “평생 아동문학을 창작한 바가 없기”⁶⁾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1~2회 정도의 연재분에 대한 언급’⁷⁾과 작품 목록⁸⁾을 제외하고는 이 작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작품은 그 동안 염상섭의 연구자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해 왔다. 행랑채의 드난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던 이 작품이 완결된 텍스트 형태로 그 전모와 실체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 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라는 해설과 함께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김재용에 의해서이다. 김재용의 글은 이 작품의 소개와 연구에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작품을 둘러싼 당대 사회·역사적 맥락의 탐색과 천착에 집중하고 있어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한편 어린 소년 완식이를 서사의 주체로 동원하는 아동문학의 범

5)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 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177면.

6) 위의 글, 177면.

7) 김종균, 『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김재용 위의 글 176면에서 개인용.

8) 이 작품은 권영민이 편집한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87, 477면의 중·단편소설 목록에 『채석장의 소년』, 『소학생』 제76호(1950. 3)라는 서지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에 속하는 이 작품의 서사와 문체의 밀도는 염상섭의 기존 서사 문법에 비추어보면 과연 염상섭의 소설이 맞나 하는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성글고 평면적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염상섭은 왜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지점은 이 부분에서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천착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작품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동문학이라는 서사의 외피에서만 그럴 뿐이지 그 이면을 천착해보면 당대의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 민족적인 전망을 모색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던 염상섭 소설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이 작품이 등단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염상섭의 작가적 지향과 문학적 정체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민족문학의 궤도와 자장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해방공간의 알레고리적 축도

이 작품이 시대적인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의 탐침을 드리우는 시기와 대상은 “해방과 함께 자유와 방종이 뒤섞인”⁹⁾, 그래서 흔히 민족의 격동기라 불리는 해방공간에서의 빈곤과 민주주의이다. 실제로 빈곤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모리배들의 발호와 부정부패, 주택과 식량위기, 군정 이양 등과 더불어 당시 해방공간에서 민족의 명운을 가름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였다. ‘해방 직후 만주 생활을 청산하

9) 전상인, 『해방 공간의 사회사』,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 책세상, 2006, 152면.

고 신의주에서 사리원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여 돈암동 295의 3호에 거주를 정하는 한편 문단에 다시 등장한 후 공적인 활동을 시작¹⁰⁾하는 염상섭 또한 그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아무 준비 없이 큰 길을 떠나는 차림차리”¹¹⁾나 “벼락해방을 받고 두서러 못 차리는 혼란기”¹²⁾로 규정된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 과제의 해법과 민족적 전망을 모색하는 작업에 골몰하던 염상섭에게 작가의 역할이나 소명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무게로 다가왔다.

백철: 그럼 건국도상의 신문학의 주조와 그 수법은 무엇이여야 하겠습니까?

염상섭: 리얼리즘이지요. 역시! 물론 지금은 건설기니까 꿈도 있고 이상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과거의 낭만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고 현실에 발을 붙인 이상이고, 꿈일 터이니까 역시 그 문학의 본위는 리얼리즘이라고 봅니다.....

김동인: 그저 문학이란 낭만이라 할까, 감상(感傷)이라 할까. 읽고 나서 막연히 느껴지는 일종의 향수적(鄉愁的)인 것에 그 본성이 있지 않을까?

염상섭: 나는 문학을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는데.....그러나 문학이란 하나의 향락점보다도 영양소가 되어야 하니까 거기엔 생활이 문학의 중요한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학의 본도라는 것은 그것이 생활이나 현실을 피해서 존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는 정면(正面)하는 데 있는 것이 되.....¹³⁾

백철의 사회로 진행된 1947년의 좌담회 장면이다. 해방공간에서

10) 김윤식, 앞의 책, 765-795면 참조.

11) 염상섭, 『작자의 말』,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전집』Ⅲ, 소명출판, 2014, 62면.

12) 염상섭, 『해방 후의 나의 작품메모』, 한기형·이혜령 엮음, 앞의 책, 96면.

13) 염상섭, 『신문학운동의 회고와 전망』, 한기형·이혜령 엮음, 앞의 책, 59-60면.

의 바람직한 조선문학의 방향을 묻는 백철의 질문에 패널로 참여한 김동인과 염상섭의 대답은 사뭇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창조》의 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염상섭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신문학 초창기에 개척자 역할을 자임하던 김동인의 대답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사상적 원천을 이루는 낭만적 개인주의”¹⁴⁾의 모습이다. “세상에서 체험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¹⁵⁾을 주조로 하는 낭만적 개인주의의 틀 안에서 여전히 안분자족하며 자족적 실체로서의 문학의 자기 반영성을 중시하는 김동인에게 해방기의 혼란 수습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 해결을 안고 있는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고민은 거의 관심 밖이다. 반면, ‘건국도상의 신문학의 주조와 그 수법’을 묻는 백철의 질문에 단호하게 ‘리얼리즘이지요. 역시!’라고 대답하는 염상섭에게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등단 이후 시종일관 자신의 창작 원천으로 견지하고자 했던 “식민지를 극단적인 말세적 사회로 여기고 대책을 강구하는 난세의식”¹⁶⁾과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의 현실인식이 해방공간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채석장의 소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이다. 이 작품은 해방공간에서의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압축하는 알레고리적 축도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1) 협력과 연대의 가치 담지자로서의 어린이

이태준의 〈해방 전후〉나 김남천의 〈1945년 8.15〉 등의 소설을 비롯한 기록이나 회상들이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방

14) 황중연, 『낭만적 주체성의 소설』, 문학사와 비평학회, 『김동인 문학의 재조명』, 새미, 2001, 92면.

15) 위의 책, 93면.

16)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14면.

공간의 상황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던 과도기였다. 그러한 시대상황에서 당시의 시대적 과제와 쟁점으로 떠오른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각 정파와 세력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면서 시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혼란과 격변의 늪으로 빠져든다. 게다가 “기근의 지옥에서 신음”¹⁷⁾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해방공간의 혼란과 분열은 더욱 악화된다. 등단 이후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의 작가적 정체성과 민족주의자로서의 이념적 지향 사이의 균형 감각을 견지하고자 했던 염상섭에게 “현실을 거리화시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¹⁸⁾할 정도로 혼란과 폭력이 난무했던 해방공간의 사회상은 매력적인 소설적 분석과 성찰의 대상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염상섭이 발표한 산문이나 좌담회 진술 등을 살펴보면 “관념적이고 당위적인 논리로 현실을 재단하는 대신 오직 현실을 냉철히 해부하고 성찰하는 데 집중”¹⁹⁾ 리얼리스트로서의 염상섭의 모습이 약여하게 드러난다.

해방 이후 더욱이 근경 경향에 품미소연한 폭동·폭력행위의 계기빈발하는 암담한 현상을 볼 때 이것은 다만 식자의 개탄이나 일반대중의 빈축·지탄 정도로 논과할 문제가 아니라 실로 우리의 문화 정도에 대한 자기비판을 요청케 하고 우리의 민주국가 건설과 자유 획득 및 그 옹호에 있어 우리의 역량을 자의케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민족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전도를 그르치지 않을 근본대책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조차 없지 않게 하는 바 있다.....

17) 전상인, 앞의 글, 162면.

18) 최현식, 『파탄난 '생활세계'의 관찰과 기록』,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152면.

19) 위의 글, 152면.

어떠한 폭동이나 폭력행위든지 그 배후에는 정치적 모략이 다분히 잠영하여 있으며 여기에 근시안적·소극적 현실부정과 당동별이 하는 소아병적 배제의욕이 가미하고 또 비록 애국애족의 열정과 울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편협한 시야에서 방황하다가 영웅주의에 심취하거나 지사연하는 망상으로 변모될 때 발작적으로 폭력적 직접행동에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더욱이 배후에 계획적 정치모략이 있을 때 이것은 폭동 교사 심지어는 매수행위의 추태에까지 이를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인즉 여기에 가서는 언어도단이거나와 그 어느 경우이나 비현대적·비민주주의적이며 사이비 애국적임은 물론 이러한 천려망동이 거듭하여 국사를 그르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²⁰⁾

...여하간 그 서론과 결론만을 말한다면 먹는 문제의 긴급한 해결과 군정의 완전한 이양이 일반의 요청일 것이요, 진언코자 하는 중점일 것이다. 정치의 요체가 궁극에 가서는 먹는 문제에 있고 더욱이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 처하여서는 모든 난관과 혼란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때문이며.....

가령 최근의 1월 이후의 물가광등과 인플레이 격화의 단말파적 현상을 볼 제 그 조정과 방지책에 있어서만이라도 하등의 비상 시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²¹⁾

두 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해방공간 당시 민생 문제와 정국 불안에 대한 염상섭의 인식 수준과 관심의 수위이다. 좌우의 이념적 지향을 기본축으로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분기하는 각 정당이나 사회 단체들 사이의 헤게모니 각축의 열기와 열정이 분출하는 해방공간의 정국은 ‘들끓는 용광로’를 방불케 하는 형국이었다. 당시 각 정파 간의 권력투쟁을 위한 폭력과 테러가 ‘혼돈의 도가니’와도

20) 염상섭, 『폭력행위를 절멸하자』, 한기형·이혜령 엮음, 앞의 책, 17-19면.

21) 염상섭, 『부문별 위원회 설치와 실질적 이양』, 한기형·이혜령 엮음, 앞의 책, 35-37면.

같이 준동하는 정국의 혼란 및 불안의 정도와 수위에 대해 염상섭은 '식자의 개탄이나 일반 대중의 빈축과 지탄을 넘어 민족성을 재검토' 해보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염상섭은 당시 그 배후에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각 정파나 단체들의 정치적 모략이 개입된 폭력과 폭동 사태들이 궁극적으로는 국사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염상섭이 해방공간의 정국 불안이나 혼돈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주택난이나 식량 위기로 인한 민생 문제였다. 실제로 해방공간 당시 식량 위기로 인한 민생문제는 아주 심각했다. '해방 공간에서 전개된 남한의 사회사 전체를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일종의 내시경 같은 쌀의 수급 문제로 인한 식량 위기는 당시 통치 권력이던 미군정으로 하여금 내치와 관련해서는 가장 심한 곤욕을 치르게 만든 사안'²²⁾이었다. "해방 후에 한국의 경제 사정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식량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월급 받은 걸로 전부 식량을 사도 한 달 분을 먹을 분량이 안 됐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식량마저 부족해서 시골로 직접 사러 가야 했어요"²³⁾라는 진술은 당시 식량 위기로 인한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웅변으로 증거한다. 항상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의 현실 감각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염상섭에게 이러한 민생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문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방공간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관과 혼란의 실마리로 인식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미 군정 당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것도 민생문제에 대한 염상섭의 그러한 인

22) 전상인, 앞의 책, 158면 참조.

23) 유병화, 『노동자 한 사람이 회사를 이길 수는 없다』,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250면.

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채석장의 소년』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모티프로 기능하는 완식이의 복학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모티프가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 모색에 대한 염상섭의 해법과 문제의식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완식이의 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년들이 보여주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서사 설정을 통해 염상섭은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 모색에 대한 자신의 해법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해방 이후 만주에서 귀환 후 서울의 방공굴에서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화재와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한 완식이의 복학 문제는 완식이 가족에게 생의 강력한 구심력과 원동력으로 작용할 정도로 절실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만주에서 교사로 봉직하던 완식이 어머니가 채석장이나 피복 공장의 일용 노동자로 나서거나 누나가 반찬 가게와 함께 신문팔이에 나서는 것들은 모두 완식이의 복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비용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여 지지 부진하던 완식이의 복학 문제는 채석장에서의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완식이와 인연을 맺게 되는 규상이와 영길이의 도움에 의해서 해결된다. 규상이와 영길이의 적극적인 주선과 도움에 의해 완식이의 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창규의 실신과 완식이 가족의 이사, 그리고 규상이와 영길이의 갈등과 화해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은 그 모티프들을 통해 해방공간에서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한 민생과 정국 혼란에 대한 자신의 진단과 해법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창규의 실신과 완식이 가족 이사 모티프를 통해서만 주택난과 식량 위기로 인한 해방공간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투사하고 있으며,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

는 두 집단 간의 갈등과 화해 모티프를 통해서 “동족상잔의 잔인성을 발휘하며 폭력적 망동이 무소부지”²⁴⁾한 당시 정당과 파벌 간의 반목과 대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그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에 규상이와 영길이를 축으로 한 소년들을 주도적인 행위자로 나서게 하는 설정을 통해 소년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투사하고 있다.

네 아이가 소사실예를 가 보니 박창규는 그저 썩근썩근 자고 있었다. 흔들여 깨우니, 병으로 쓰러졌던 것이 아니요, 이틀이나 굶고 너무 허기가 저서 그랬던 것이라 정신을 차리고 앉으니 기운이 아까보다는 난 모양이나, 우선 물을 달래서 한 사발을 벌떡벌떡 쥘다.....

당장 한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하던 동무가 배가 고파서 쓰러지다니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도 있는가 하고, 규상이는 눈이 회동그래졌다. 비참한 것을 지나 무서웠다.....

영길이는 어깨에 멘 것을 두 아이 앞에 털썩 내려놓으며 꺾꺾 웃는다.

“그 뭐냐?”

규상이가 대강 짐작은 하면서도 물었다.

“쌀야. 집에서 좀 퍼 왔지!”

영길이는 호기스럽게 또 허허허 웃었으나, 규상이는 웬일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잠자코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는 창규보다도 더 감격하고 감사하였다.

“영길아! 고맙다. 난 너를 잘못 생각했었다!”

규상이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도, 사과하듯이 이런 소리를 하며.....²⁵⁾

이것은 입학 수속에 필요한 것이다. 집에 가서 입학 원서를

24) 염상섭, 『폭력행위를 절멸하자』, 한기형·이혜령 엮음, 앞의 책, 21면.

25) 염상섭, 『체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104-119면. 앞으로 본문에서의 작품 인용은 별도의 각주 처리 없이 본문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통일함.

쓰고 자기의 도장을 찍으면서, 완식 어머니는 죽은 남편의 생각이 또 났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가엾었다

다시 학교에 가서 수숙을 마치고 나오자니, 오정이 불며 학생들이 왁자하고 파해 나왔다.....

“자아, 인젠 이삿집이다!”

영길이가 앞장을 서 서두니까, 온 아침 내 완식이 누이가 꾸려서 내놓은, 올망졸망한 짐을 제각기 하나씩 들고 나선다.

“그만들 뒤요, 무슨 짐이 많다고 이 수선들야.”

완식 어머니는 웃으며 말리었으나, 짐을 든 아이들은 벌써 열을 지어 나셨다.(『채석장의 소년』, 170-171면)

“봉수야, 그렇게 노할 게 뭐 있니? 저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영길이가 새침하니 입을 봉하고 걷는 봉수에게 말을 붙였다. 한 달만에 비로소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봉수가 가방을 들어다 주고 같이 갔고 했어도 모른 척하고 헤어졌었다. 봉수는 단단히 화가 났던 끝이라, 웃는 듯하면서도 입만은 삐죽하고 말았다.

“사내자식의 입에서 잘못했던 말이 여간해서 나온다던, 그만 풀자꾸나!”

영길이가 봉수의 어깨를 탁 치니까,

“여간 잘못을 안 했던 게로구나?”

하고 봉수는 겨우 입을 열었으나 쏘는 듯한 핀잔이 되고 말았다.

“그래, 인제 그만해 뒤.”

규상이가 마지막 증채를 붙였다.....

그러나 영길이는 더 탄하지는 않았다.....

완식은 못마땅하던 영길이와 친해져서 새 등무가 또 하나 생긴 것이 기쁠 뿐 아니라, 컴컴허던 마음에는 등불이 환히 켜진 것 같다. (『채석장의 소년』, 123-127면)

먼저 주택과 식량 위기로 인한 민생 문제에 대한 자신의 진단과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모티프로 기능하는 사건은 ‘창규의 실

신'과 '완식이 가족의 이사'이다. 일관성 없는 임시 변통의 정책 대응과 모리배들의 간계 및 탐욕으로 인한 식량위기는 미 군정 당국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기능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결식으로 인한 창규의 실신은 식량 위기로 인한 민생 문제에 대한 염상섭의 진단과 해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축한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잔인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던 1946년 남한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인해 학교와 직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결식자들이 많았다.'²⁶⁾는 당시의 심각한 식량 위기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사실과 더불어 당시의 식량 위기로 인한 민생 문제를 염상섭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식량 위기와 함께 주택난²⁷⁾은 당시 사회 불안과 혼돈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두 동인으로 작용했다. 식량 위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 파행적인 자본 축적의 구조적 모순"²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난 또한 '한국전쟁 전 서울에 거주한 시민들 중에서 정상적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토막이나 토굴 주택과 같은 불량 주택에 살 정도'²⁹⁾로 심각했다. 귀환 후 남산 아래 적산가옥에서 거주하다가 화재로 인해 번지수도 없는 방공굴에 거처를 정한 완식이 가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당시 주택난으로 인한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웅변으로 증거한다.

식량 위기와 주택난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혼돈에 대해 염상섭이

26) 전상인 앞의 글, 161면 참조.

27) 주택난을 서사의 핵심 모티프로 동원하는 작품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64-85면 참조.

28) 위의 책, 77면.

29)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56면 참조.

바람직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이다. 창규의 실신과 완식이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규상이와 영길이를 축으로 한 소년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인 구호와 원조에 나서는 행위를 지배하는 동기는 오직 타자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다. 이들 소년들의 결정과 실천에는 오직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에 대한 기약이나 이해관계의 계산이 없이,…… 깊은 생각도 계산도 욕망도 없이, 다만 문득 마음이 내켜 베푸는 무상의 증여,…… 필연적이지 않고 인과를 초월해 있으며,…… 익명의 두 타자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와 소통만을 요청”³⁰⁾하는 친밀성과 선의만이 개입하고 있다. 그 이외에 계산적 합리성이나 간지와 같은 불순한 동기나 욕망이 투입할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다.

한편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던 해방공간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및 그 해법의 알레고리적 모티프로 기능하는 사건은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갈등과 화해’이다. 구체적으로 정국 불안과 그 해법의 알레고리적 담지체로 기능하는 모티프는 규상이와 영길이를 축으로 하는 두 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방식의 차이와 해소이다. 창규와 완식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세력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한 적대적 관계만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세력이 동원하는 방식은 사뭇 대조적이다.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세력이 모든 문제를 완력이나 위력에 의존해서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제압

30) 김홍중, 『사랑의 꿈과 환멸』,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192-194면.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 비해 규상이를 정점으로 하는 세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두 세력의 상이한 문제 해결 방식은 정치의 논리가 모든 영역과 부문을 과잉 지배하던 "유례없는 정치적 양양기"³¹⁾였던 해방공간의 공론장 안팎에서 토론과 연설, 테러나 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 투쟁에 골몰하던 각 정당이나 정파의 전술 전략과 알레고리적 유비를 이룬다. 한편 식량 위기와 주택난과 마찬가지로 정국의 불안과 혼돈에 대해 염상섭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해법 또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이다. 창규의 원조가 계기가 되어 완식이 가족의 이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두 세력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모습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순수한 선의와 무상성의 윤리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식의 복학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염상섭의 전적인 기대와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상은 규상이와 영길이를 축으로 하는 소년들이다. 그에 비해 규상이와 영길이 아버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실질적으로 복학이나 이사 문제를 해결하는 재력이나 지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의 수동적인 협조자나 조력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년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내세우는 서사의 설정은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 모색에 대한 염상섭의 해법이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 함의는 두 가지이다. 먼저 염상섭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나 민족적인 전망 모색의 해법으로 자신이 제시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의 담지자로서 소년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염상섭은 또한 "열려 있는

31)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7면.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³²⁾해 있던 해방공간에서 어린이야말로 “과거세대의 모든 꿈을 육화한 존재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³³⁾로 상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염상섭은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 모색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역사 발전과 사회 변혁의 주역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기대와 신뢰를 소년들에게 투사하고 있다.

2) 시대적 과제와 정신으로서의 민주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공간에서의 산적한 시대적 과제 해결 및 민족적 전망의 수립문제와 관련하여 염상섭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였다. 협력과 연대의 가치와 더불어 염상섭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들끓던 해방공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의 근대 민주주의 제도는 “남한의 공산화 방지라는 최소한의 정책 수행을 위해 처음부터 정치사회화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중시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를 다방면으로 교육”³⁴⁾한 데서 출발한다. 사회 변혁과 새로운 세상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

32) 김홍중, 『사회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462면.

33) 위의 책, 462면.

34)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525면.

요하지 않았다. 미국을 통해 소개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안타깝게도 그 본래의 궤도에서 한참을 이탈하여 엽기적인 풍경에 가까울 정도로 과잉 소비되거나 오·남용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나 지속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박래품으로 들어온 민주주의는 전통사회의 규범이나 일제 식민지배체제의 전체주의 습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조선의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몸에 맞지 않은 옷으로 따라서 그와 같은 궤도 이탈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군정 말기에 단행된 시민권의 전면적 확대는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와 시민의식 및 교양 수준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조숙한 민주주의 (premature democracy)로 불러도 무방”³⁵⁾하다는 평가는 아주 적절한 진단으로 보인다.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의 현실감과 균형 감각의 소유자였던 염상섭에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오염되고 왜곡되는 현실은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리버럴리즘이니 리버럴리스트니 하는 말이 도처에 범람한다. 이것도 해방 이후의 한 새로운 현상일거다. “그 사람은 고작해야 리버럴리스트지.”, “아니, 나는 리버럴리즘의 입장에서.....” 이따위 대화를 어느 좌석에서나 한두번은 듣는다. ‘고작해야 리버럴리스트’란 말은 제 아무리 소위 진보적이라 해도 범박한 민족주의에서 털이 조금 난 정도이겠지 하는 경모하거나 불만을 품은 어기이요, “아니, 나는 리버럴리스트다.”고 나서서 사람은 자기가 중간파라는 표명이거나 좌익이 아니라는 변명같이 들린다. 대체, 이 리버럴리스트가 조선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금 있으면 자유당 하나쯤은 나올거라.....³⁶⁾

염상섭 특유의 냉소와 야유의 기운으로 충만한 이 글을 통해서

35) 전상인, 앞의 글, 170면.

36) 염상섭, 『자유주의자의 문학』, 한기형·이혜령 엮음, 앞의 책, 87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자유롭게 넘나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위태롭던 해방공간의 담론장에서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정작 아무 것도 말하는 바는 전혀 없게 되는, 끊임없이 차연의 활강운동을 반복하는 ‘텅 빈 실체로서의 기표’로 과잉 소비되고 오남용되고 있던 민주주의의 오염과 왜곡에 대한 염상섭의 민감한 자의식이다. 실제로 ‘근대 시민사회의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전통사회의 수동적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더 가까웠던 당시 해방공간에서의 조선의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실체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해방공간에서 민주주의는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강변하는 임시방편의 보호막이나 방어기제로 전유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염상섭은 이러한 세태나 풍경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염상섭의 이러한 염려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그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장된다.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의사나 기분을 존중하셔야죠.”

규상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영감님도 웃으며,
“아이들 중심으로 어른 독재가 아니신 걸 보니. 댁에선 민주주의를 단단히 실천하십니까그려.”

하고 말을 받는다.

“암 그렇죠, 워낙은 가정에서부터 민주 정신이 실천돼야죠. 어린이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천의 첫걸음이라구 나는 생각합니다만.....(『체석장의 소년』, 165-166면)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과 열기가 폭발 직전의 임계 상황으로 치닫던 해방공간에서 염상섭이 협력과 연대의 가치와 더불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상정한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

해와 실천과 관련하여 이 문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나이에 기초한 장유유서의 규범과 수직적인 위계를 그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어린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역사 발전과 사회변혁의 주역으로서의 어린이들에 거는 염상섭의 기대와 신뢰가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서론 부분에서 제기한 질문 - 염상섭은 기존의 서사 문법이나 문체의 밀도에 비추어보면 자신의 소설이 맞나 의심해야 할 정도로 성글고 평면적인 이 작품을 왜 발표하였을까? - 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을 연재하다가 중단한 《소학생》이라는 잡지의 정체성과 구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잡지의 이념적 지향이나 구성상의 특징은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와 관련된 《소학생》의 이념적 지향이나 구성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잡지가 표나게 내세우고 있는 민족주의적 지향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구성상의 특징이다. '1945년 12월 1일, 윤석중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아동문화 협회의 기관지로 1946년 2월 11일 발간한 《소학생》지'³⁷⁾는 "좌우간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치열하던 때 거의 유일한 민족진영의 아동지"³⁸⁾라는 규정에 걸맞게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잡지였다.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이 잡지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주체의식의 확립을 위한 선동적"³⁹⁾인 내용 중심의 편집 방침을 시종일관 고수했다.

37)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38면 참조.

38) 위의 책, 339면.

39) 위의 책, 339면.

“특히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양 교훈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⁴⁰⁾거나 “문학작품도 민족 자주의식을 고취한 작품 등의 도적인 작품을 골라 편집했다는 점”⁴¹⁾ 등의 사실은 그러한 편집 방침을 선명하게 증거한다. 짐작건대 염상섭이 이 잡지에 『채석장의 소년』을 연재한 것은 이 잡지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바로 그 민족주의적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46년에 창간한 경향신문의 초대 편집국장으로 공직에 복귀함과 동시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재개한 염상섭. 그리고 중도 우파 민족주의적 지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항상 민족의 운명을 사유의 중심에서 고민하고 성찰하고자 했던 염상섭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과생되는 잔여와 잉여인 무질서와 혼란으로 들끓는 해방공간의 현실은 인식과 창작의 충동을 자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염상섭은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와 민족적 전망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의 실천을 통해 민족의 명운을 개척해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신생과 비약의 기운으로 충만한 소년들을 제시하는 소년소설을 발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작 의도와 문제의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매체가 바로 민족주의적 지향을 잡지의 공식적인 정체성과 이념적 지향으로 표방한 《소학생》 지였을 것이다. 기존의 서사 문법이나 문체의 밀도에 비추어 자신의 소설이 맞나 의심해야 할 정도로 성글고 평면적인 이 작품을 염상섭이 《소학생》지에 발표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 위의 책, 339면.

41) 위의 책, 341면.

3. 나오는 글

이 글은 분석 대상은 염상섭의 소년소설 『채석장의 소년』이다. 평생 아동문학이라고는 발표해본 적이 없는 염상섭이 왜 『채석장의 소년』과 같은 아동문학을 발표하였을까? 그것도 한국 근대사에서 최고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공간의 시기에? 게다가 아무리 소년소설이라고는 하더라도 서사와 문체의 밀도에서 도저히 염상섭의 소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근 텍스트를? 등과 같은 질문이 이 글의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지점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은 이제까지 본격적인 작품론은 아예 없는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등단 이후 염상섭이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했던 민족문학의 자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작품임을 밝히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에서 출발한 논의의 과정을 정리·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소년소설의 외피를 쓰고 있는 이 작품은 단순한 소년소설이 아니라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인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에 대한 염상섭의 진단과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축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게 이 글의 기본 전제였다. 그 축도와 관련하여 완식이의 복학 문제가 핵심 모티프로 그리고 창규의 실신 및 완식이 가족의 이사와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화해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속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규의 실신 및 완식이 가족의 이사 모티프를 통해서도 주택난과 식량 위기로 인한 해방공간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장치로, 규상이와 영길이를 정점으로 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화해 모티프를 통해서도 당시 헤게모니를 둘러싸고서 각축을 벌이던 각 정당이나 사회 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및 그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

고리적 장치로 동원하고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및 민족적 전망의 수립과 관련하여 염상섭이 제시한 진단과 해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시 조선이 처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염상섭은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염상섭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문제 또한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염상섭은 해방공간에서의 조선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과제인 협력과 연대의 가치 및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주체들로 소년들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염상섭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주역으로 상정한 소년들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기대와 신뢰를 투사하고 있었다.

서두에서 제시한 이 글의 문제의식의 핵심인, 평생 아동문학이라고고는 발표해본 적이 없는 염상섭이 왜 『채석장의 소년』과 같은 아동문학을 발표하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였다. 이 작품을 연재하다가 중단한 《소학생》지가 표방한 매체의 이념적 정체성과 이 작품을 통해서 염상섭이 드러내고자 한 문제의식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지향과 소년 중심주의 때문이라고 보았다.

■ 참고문헌 ■

1. 자료편

- 염상섭,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2014.

2. 국내·외 논저

- 강만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87.
김원우, 『산책자의 눈길』, 강, 2008.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문학과사 비평학회, 『김동인 문학의 재조명』, 새미, 201.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유병화, 『노동자 한 사람이 회사를 이길 수는 없다』,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Abstract>

Yeom Sang-seop's 『A Boy of the Quarry』

Kong, Jong-Goo

The analytical object of this article is the Yeom Sang-seop's 『A Boy of the Quarry』. This work is just not a boy novel, but a allegorical miniature which projects the diagnosis and solution of Yeom Sang-seop to the periodical challenges and national outlook in the 1945-1948. In relation to this reduced drawing, problem of Wansik, 's going back to school functioned core motif of this work. And Chang gyu's blackout, house-moving of Wansik, 's family and confliction and compromise between Gyu sang's powers and Young gil's powers functioned dependent motif which supports the core motif. Motif of Chang gyu's blackout and house-moving of Wansik, 's family functioned allegorical device which projects Yeom Sang-seop's solution to the problem of public welfare in the 1945-1948. The confliction and compromise between Gyu sang's powers and Young gil's powers functioned allegorical device which projects Yeom Sang-seop's solution to the confliction and complication among each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periodical challenges and national outlook which should resolve urgentiy in the 1945-1948, Yeom Sang-seop suggested two diagnosis and solutions. One is the value of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which based on the unconditional hospitality and



community morals. In addition to the value of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he recognised problem of correct understanding and practice to the democracy too as urgent periodical challenges. Besides, he suppose boys as the subjects of two solutions and challenges which should resolve urgently in the 1945-1948. Through this narrative frames, he projects his powerful belief and hope to the boys.

Key words: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community support, the unconditional hospitality, democracy, boy-centrism, the periodical challenge, national outlook, allgory, national literature, realist

투 고 일 : 2017년 1월 24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